

이웃사촌·대규모공연·도서지역·성과확산 순회사업

- 일시 : 1차 - 2017. 2. 14(화) 10:00~18:00, 2차 - 2017. 2. 20~2.21(화) 10:00~18:00
- 장소 : 1차 -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2차 - 장애인문화예술원 3층
- 심의위원(가나다순) : 강윤주, 김신아, 모옥희, 정희섭, 조경환, 채경진, 현경철

2017년도 소외계층문화사업(신나는 예술여행) 대상자 발굴형 프로그램 지원 분야에는 총 377건이 접수되었고 그 가운데 총 13건을 선정하였다. 제출된 지원서를 바탕으로 서류심사와 프레젠테이션 및 인터뷰 심사가 진행되었다. 심의위원들은 이웃사촌, 대규모순회, 도서지역순회, 성과확산순회의 사업유형별 제안한 신청서를 통해 프로그램의 충실성, 적합성, 단체 사업수행 역량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선정단체의 1.5배수에서 2배수를 선정하였다. 특히 서류심사를 거친 2차 프리젠테이션 발표단체들에 대해서는 대상자발굴형프로그램 각 지원유형의 사업의 취지에 맞는 이해에 대한 의견들을 심도있게 청취하고 질의하였다.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은 지난 14년간 지속된 사업이지만 대상자발굴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원단체들이 아직 사업의 이해도가 부족한 듯 하다. 대상자 맞춤형프로그램 지원과 차별성이 없어 제안내용이 사업에 적합하지 않고, 실현가능성이 의문시 되는 부분들이 다소 엇보였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종 선정된 단체들은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순회대상처에 대한 이해와 프로그램의 적합성, 단체의 수행 역량이 우수하다고 판단되어 금년도 성과를 기대할만 하였다.

심의에 앞서, 심의위원들이 사전 토의를 통해 각 사업유형별 중점고려사항들을 협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단체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심의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또한 향후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의 지속가능한 도약과 발전을 위해 지원단체들의 잠재성을 고려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단체들을 중심으로 더 면밀한 검토를 하였다.

‘이웃사촌 순회사업’은 진행 횟수가 많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지역밀착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참고로 하여 심의위원들은 살펴보았다.

‘대규모 순회사업’은 진행 횟수는 적지만 문화소외지역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말 그대로 전 국민이 ‘신나는 예술여행’을 할 수 있는 촉매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프로그램의 적합성과 기대효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도서지역 순회사업’은 서해 5도 및 도서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섬에서 거주하는 이들의 문화향유 프로그램으로서 적합성을 검토하였으며, 기상악화에 대한 단체의 위기 관리 준비상태 및 모객방법, 주민들의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공연시간 대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였다.

‘성과확산 순회사업’은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며, 사업을 어떻게 대국민들

에게 알릴 것인가와 사업 효과를 점검하고 또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한 콘텐츠의 충실성과 적합성, 비전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모객을 위한 홍보계획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그 가운데 일부 심사위원들은 지방자치정부 출연기관인 지역문화재단과 일반 예술단체 및 기획사가 같은 기준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향후 지역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공모는 별도로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문화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였고, 프로그램의 충실과 작품성(20%), 프로그램 내용의 적합성(40%), 단체의 사업수행 역량(40%)의 심의기준에 맞춰 우수한 단체들을 최종 선정하였다.

부디 이번에 선정된 단체들이 대상자 발굴형 프로그램으로 문화 향유를 통해 ‘살아 숨 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촉매제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심의위원 일동

